全州史庫와 同藏書의 疎開經緯에 對하여

白　　麟*

目　　次

序
(一) 全州史庫의 設置
　　藏書의 內容
(二) 壬亂과 政府의 避難
(三) 全州史庫本의 海州移藏
(四) 妙香山에 疏開
(五) 結　　論

序

宣祖 25年의 壬辰倭亂은 비단 朝鮮 뿐만 아니라 極東亞細亞를 뒤흔든 大戰亂이었다. 그리고 그 結果는 매우 비참하였다. 人命과 財產의 被害는 말할 것도 없었으며 各 建造物 뿐만 아니라 宮闕 各 官衙의 燒失로 인하여 歷代의 寶物, 文武樓와 弘文館의 書籍, 春秋館에 있었던 歷代朝의 實錄, 承政院日記, 高麗朝의 史籍, 그 외의 圖書籍簿等 貴重한 것은 몽땅 灰燼되어 또 다시 이것을 볼수 없게 되어 李朝文運衰退의 한 原因이 되었음을[1] 탄식하지 않을 수없다.

그러므로 壬辰倭亂 때 唯獨 難을 避하여 疎開되었던 全州史庫本이야 말로 壬亂 以後에 있어서 이 나라 書籍文化의 불씨와 같은 것이라고 하겠다. 즉 李朝實錄 全州史庫本을 底本으로 하여 實錄副本 四秩이 復印되었고 또한 宣祖 39年에는 春秋館 및 江華, 妙香山, 太白山, 五台山 等에 이것을 보관하기 위하여 各己 史庫가 設置되었다는 事實만으로도 立證이 되겠다.

* 서울 大學校 中央圖書館

1) 又入內帑庫, 槍掠金帛, 焚景福宮昌德宮昌慶宮, 無一遺者, 歷代寶玩及文武樓弘文館所藏書籍承文院日記皆楚燼, (中略) 皆不待賊至而爲我民焚 (西崖集)
　歷代寶玩及文武樓所藏書籍 春秋館各朝實錄 他庫所藏前朝史草 承政院日記 皆灰燼 藝文館檢閱趙存世朴鼎賢任就正金善餘等 焚本館史草 踰城而逃走 (再造藩邦志)

아울러 弘文館이 各處에 散在한 書籍의 蒐集에 盡力한 것도 當時에 남은 책을 根本으로 하였던 것이며, 또 亂後 얼마 아니되여 刊行된 三國史記, 東國通鑑, 龍飛御天歌等과 같은 書籍도 모두 當時에 疎開하였던 것을 底本으로 하여 再印한 것이다. 따라서 서적의 疎開는 亂後의 學術과 아울러 書籍文化를 엿보는데 있어서 매우 重要한 意義를 주는 것이라고 보겠다.

뿐만 아니라, 1885年 甲午更張으로 弘文館이 廢鎖되면서 그 藏書가 奎章閣에 移管되었고 그후 1910年에는 史庫制度가 廢止되어 各史庫의 典籍과 記錄이 또한 奎章閣圖書에 合流됨으로써 壬亂前의 全州史庫藏本은 事實上 現 奎章閣圖書 中에서 中核을 이루는 資料로 되고 있다. 따라서 現 奎章閣圖書의 根源을 밝히는데 있어서도 全州史庫本의 移動에 對한 硏究는 매우 重要한 일이라고 보아진다.

壬亂前 全州史庫에 收藏되였던 書籍 中 가장 重要한 것은 實錄이기 때문에 全州史庫의 傳來를 考察함에 있어서 主題가 되어야 할 것은 實錄이다. 그리고 이 實錄의 移動을 알기 위하여서는 全州史庫, 海州史庫, 妙香山史庫 江華史庫 등의 順으로 그 行蹟을 調査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實錄은 물론 그밖의 서적에 대해서도 壬亂時의 疎開過程과 그후 오늘날까지의 보관상태에 대하여 고찰하려는 것이 이 論文의 重要骨子인 것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1. 全州史庫 設置, 2. 壬亂時의 移動, 3. 海州史庫와 妙香史庫의 設置, 4. 書籍의 內容, 5. 現在의 所藏如否로 나누어 考察키로 한다.

全州史庫의 設置

全州府에 史庫를 構築하자는 議論은 일찍부터 있었던 일이다. 全州는 李氏王朝의 璿源之地라는 點에서 볼 때 李朝 太祖의 睟容과 함께 歷代王의 實錄을 이곳에 奉安한다는 것은 李氏王朝로서는 조금도 이상할 것은 없다고 생각된다.

史庫가 設置된 것은 世宗 21年(1439) 7月 日이다. 世宗代에 와서 史庫設置問題가 論議된 것은 太祖, 定宗, 太宗代의 王朝實錄이 이때에 纂輯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春秋館은 慶尙道의 星州와 全羅道의 全州에 史庫를 構築하여 典籍을 갈마두자고 啓請하여서 王의 允許를 얻었다.

그러나 星州에는 史庫가 곧 지어 졌지만 全州에는 그때까지 構築되지

못했던 것이다.[2]

즉 바로 그해 星州에는 藏閣이 建立되었으나 全州에는 웬일인지 成宗四年 五月에 이르기 까지 二十八年間을 府內의 僧義寺와 鎭南樓등을 轉轉하면서도 藏閣의 建立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典籍은 分藏되어, 世宗二十七年十二月에는 三朝實錄(太祖實錄十五卷, 定宗實錄六卷, 太宗實錄三十六卷) 四本을 京城春秋館, 忠州, 星州등과 함께 全州에도 分藏하였는데, 世宗實錄에 다음과 같이 記錄되어 있다.

「春秋館啓 太宗實錄十五卷, 恭靖王實錄六卷, 太宗實錄三十六卷, 今已各書四本, 一本藏本館, 實錄閣三本分藏于忠州, 全州, 星州史庫, 從之[3]」

그런데 全州史庫가 아직 建立되기도 전에 즉 世祖 12年 11月 大司憲梁誠之는 歷代實錄에 關한 上書에서 史庫設置의 場所를 全州에서 南原의 智異山으로 移動하도록 建議한 事實이 있다.[4] 그는 智異山이 四大名山 中의 하나이기 때문에 藏之名山之義를 들어 全州史庫의 實錄을 智異山으로 옮기자고 했다. 그러나 全州는 李氏王朝의 「璿源之地」이기 때문이었는지 그 實現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全州에 史庫를 建立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成宗三年에는 새로 世祖와 睿宗 兩朝의 實錄을 奉安하였는데 당시 實錄은 全州府內의 鎭南樓에 奉安되어 있었다.

成宗四年에 와서야 全州에 實錄閣이 建立되었는데 그 經過에 對하여는 東國輿地勝覽에 다음과 같이 記載되고 있다.

「在慶基殿東垣內, 藏本朝實錄, ○金吉孫記曰, 我國自 祖宗以來實錄, 隨世編摩, 以藏內外, 內則有春秋館焉, 外則若忠州若星州, 皆有藏閣, 而獨於本府闕焉, 歲乙丑冬, 始安于府城內僧義寺, 甲申秋, 乃移安于鎭南樓, 世祖今本道玆閣, 而以歲連歉, 重興工役, 因循未就者有年, 歲壬辰春, 世祖 睿宗兩朝實錄成, 上遣同知春秋館事梁誠之, 奉安于府, 時金相國之慶, 以本館舊臣, 出按于玆, 銳意建閣, 與梁公, 卜地于慶基殿東偏, 具由以啓, 乃以旁近諸浦船軍三百爲役徒, 以府尹趙相國瑾, 領其事, 淳昌郡守金公克鍊董其役, 自去年十二月, 衆工齊事, 越今年五月而工訖云云」

이에 依하면 僧義寺에 十九年間 藏置한 다음 世祖九年甲申秋에 鎭南樓에 移置하여 九年만인 成宗四年에 慶基殿東垣內에 實錄閣을 建立하였는데 이 工事는 府尹趙瑾의 領率下에 船軍三百名이 動員되어 去年十二月에 사

2) 世宗 卷八十六 二十一年 己未七月
3) 世宗 卷一百十 二十七年 乙丑十二月
4) 世祖 卷四十 十二年 丙戌十一月

작 다음 해 五月와 이르러 竣工하였다는 것이다.

僧義寺에 대하여는 府內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全州 城內에 있었음은 알 수 있으나 그 事蹟에 對하여는 자세한 記錄을 찾아볼 수 없고, 鎭南樓에 대한 記事는 完山誌에 다음과 같은 記錄이 보인다.

「在豊沛館北, 造山之後, 永樂己丑兼府尹尹何刱建, 辛酉府尹韓承舜重修, 本朝實錄庋藏之所, 其後建閣于慶基殿東垣內, 而還安之, 樓始復今崔廢」

이는 現存 客舍뒤 造山의 北쪽에 있었던 것으로 永樂己丑 即 太宗九年(1409年)에 兼府尹 尹向이 刱建, 世宗二十三年 辛酉(西紀1441年)에 府尹 韓承舜이 重修하였다는 것이다.

어쨌든 成宗三年 世祖 睿宗 兩朝의 實錄을 奉安함에 있어서 奉安使는 이를 全州史庫의 造成後에 옮길 것을 請하였으나 이미 發程한 다음이라 어찌할 수 없었고, 代身 建築을 서둘러 다음 해 五月에 完工, 八月二十六日에는 新構史庫에 前後實錄을 함께 移安할 수 있었던 것이다. 即 成宗實錄에

「實錄奉安使, 今日拜辭, 全州史庫時未造成請造成後發遣何如…… 傳曰奉安使已發程矣又何召還」[5]

하고 同四年 八月 二十六日 己酉條에

「春秋館啓全州新構史庫, 前後實錄今並移安」

이라 記錄된 것은 이를 說明해 주고 있다.

全州史庫에는 太祖로 부터 明宗에 이르기까지 13朝의 實錄과 함께 各種 書籍을 奉藏했다. 그것은 世宗 27年부터 宣祖25年(14—1592)까지 150年間 實錄이 編纂印出될때 마다 다른 책과 함께 追藏되어왔던 것인데, 同史庫의 藏書內容은 다음과 같다.

全 州 史 庫 本

書 名	冊 數	櫃	有無	備 考
各年形止案		辰		全州
庚午元歷上下并	1冊	天		
高 麗 史	35卷	月		
高麗史目錄年表世家并	27冊	宙		
志	25〃	〃		
列傳	18〃	〃		
高麗史目錄年表世家并	27〃	〃		

5) 成宗 卷二十一 三年 壬辰八月

志	25冊	黃		
高麗史列傳	36〃	玄		(宣祖 24年)
高麗史節要一件字標	35卷	盈		
一件斤標	22冊	〃		
高麗史節要	35〃	宇		
高麗全史鋟標	47〃	日		
高麗全史目標	43冊	洪		(43책內 1책無)
貢 案 八	8〃	荒		
交食推步二件合	2冊	月		
交食通軌	1〃	天		
國朝寶鑑	3件	宇		
大統歷日通軌上下并	1冊	天		
北征錄二件并	4〃	玄		
四餘纏度通軌	1〃	天		
射 候 詩	3件	吳		
三國史節要一件	7冊	月		
宣德五星凌犯	1〃	天		
宣明歷經	1〃	〃		
宣明歷要	1〃	〃		
宣明歷步交會	1〃	〃		
授時歷捷法立成上	1〃	〃		
授時歷經上中下	1〃	〃		
授時歷議上下	1〃	〃		
授時歷立成上	1〃	〃		
實錄五函及親書櫝六開金幷八一櫝		吳		
御製敎書幷觀音現相記	3件	〃		
御製兵將說	3〃	〃		
歷代兵要	3〃	地		
易學啓蒙二件并	8冊	玄		
五星通軌	1〃	天		
五星通軌用數目錄	1〃	天		
緯度太陽通軌	1〃	〃		
貞觀政要 2件并	14〃	玄		
帝 範	1〃	月		

重修大明歷上下并	1冊	天		
陳怯二件并	2〃	玄		
初學字會二件并	2〃	〃		
七政等篇下	1〃	天		
七政等內篇中	1〃	〃		
七政等內篇上	1〃	〃		
七政等外篇上	1〃	〃		
七政等外篇下之中	1〃	〃		
七政等外篇下之下	1〃	〃		
七政等外篇下之上	1〃	〃		
冊七政等外篇中	1〃	〃		
太陰通軌	1〃	〃		
太陽通軌	1〃	〃		
回回歷各年交食	1〃	〃		
回回歷經度立成中	1〃	〃		
回回歷經度立成下	1〃	〃		
回回歷經度立成上	1〃	〃		
回回歷法	1〃	〃		
回回歷書	1〃	〃		
回回歷緯度立成上	1〃	〃		
回回歷緯度立成下	1〃	〃		
訓　　辭	3件	吳		
已　　上	34冊	天		

(6)

壬亂과 政府의 避難

全州史庫本의 疏開 事情에 于先 壬亂當時의 戰況과 아울러 朝廷의 避難經路가 어떠했는가 알아 보기로 하자.

日本의 關伯 豊臣秀吉은 宣祖二十五年(壬辰 1592) 四月에 드디어 十五萬大軍으로 朝鮮을 侵犯케 하였다. 四月十三日 小西行長을 首將으로 한 第一軍은 釜山에 상륙하여 이를 함락시키고 이어서 東萊·梁山을 거쳐 密陽에로 北上하였다. 倭將 加藤清正·黑田長政 등은 후계부대를 이끌고 陸續

6) 全州史庫曝曬形止案 宣祖二十四年 (寫本)
全州史庫曝曬形止案 朝鮮 宣祖二十一年 (寫本)

上陸하여 倭軍은 三路로 길을 나누어 北上하였다. 第一軍은 釜山·密陽을 거쳐 大邱·尙州·聞慶·忠州에 이르고(四月二十七日), 第二軍은 彦陽·蔚山·永川을 거쳐 忠州에서 第一軍과 합세하여(四月二十九日) 驪州·京城에로 진군하였고, 第三軍은 金海를 거쳐 秋風嶺을 넘어서 北上하였다. 朝廷에서는 倭兵侵寇의 급보를 듣고(四月十七日) 李鎰·申砬 등을 急派하여 倭軍의 阻止를 꾀하였으나 申砬은 鳥嶺의 天險을 두고 忠州·撻川에서 背水拒戰하다가 敗沒하고 鳥銃으로 弓矢를 부수는 倭軍은 그대로 破竹之勢로 北上하였다. 申砬의 敗報로 인하여 낭패한 서울의 上下人心이 극도로 흉흉한 속에 4月19日에는 다시 忠州의 敗報를 接하였다.

이와같이 戰勢가 날로 不利하여 이제 서울의 陷落을 目前에 둔 朝廷에서는 王과 大臣이 한 자리에 모여 議論한 결과 우선 平壤으로 피난키로 하였다.

宣祖 25年 壬辰5月 己未日 새벽 王은 仁政殿에 出御 百官과 人馬를 點呼하였다. 이날 따라 큰 비가 내렸다. 王과 東宮은 馬를 탔고 中殿은 屋轎를 타고 弘濟院에 이르니 비는 더욱 심하게 내렸다. 徒步로 따른 宗親과 文武扈從者는 百名에 不過했다고 한다. 碧蹄館에서 점심을 하고 저녁에 나루배로 臨津江을 건넜다. 庚申에 東坡館을 出發, 저녁에 開城에 當到했다. 京城이 賊에게 陷落되었다는 報告가 있어 當日로 開城을 出發 金郊驛, 興義驛을 거쳐 저녁에 寶山館에 到着했다. 25年 5月 甲子日 아침 일찌기 寶山을 出發, 安城을 지나 龍泉에서 점심을 하고, 日沒에 鳳山에 到着했다. 이튿날(乙丑) 아침 鳳山을 出發, 洞仙嶺을 지나 午後 늦게 黃州에 닿았다. 드디어 丙寅日 王은 中和를 지나 平壤에 入城하였다.

倭敵이 平壤을 向하여 계속 進擊해 오자 王은 平壤을 또 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즉 平壤으로 遷都하여 1個月도 채 되지 못하였는데 또 피난길에 올라야 했다.

宣祖 25年 6月11日 大駕는 平壤을 出發하여 安州로 向하였다.
6月 16日에는 博川을 떠나 嘉山에 到着, 17日 定州에 到着, 여기서 쉬고 다음 18日 郭山을 거쳐 宣川에 이르렀다. 그리고 19日에는 車輦館에서 宿食을 했다. 이날 平壤이 陷落되었다는 報告를 받았다. 大駕가 義州에 到着한 것은 6月 23日이다.

同王 25年(1592) 壬辰 6月에 大駕가 肅川을 거쳐 安州에 이르니 安州牧의 吏民이 四方으로 逃避하여 버렸고 安州牧吏 李民覺이 單身으로 大駕를 來迎하였던 것이다. 이 꼴을 본 大臣들은 분격한 나머지 李民覺에게 拔四

十을 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소란한 가운데 大駕는 다시 寧邊으로 向하였다. 때마침 江界判官 金大龍이가 將兵을 거느리고 平壤에 來援하는 路中 大駕를 맞이하게 됨에 御膳을 올리는 슬픈 事情도 있었다.

이때에 內殿은 德川에 머므르고 있었다. 寧邊에 이르러서도 事情은 앞서 安州와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王은 咸鏡道로 向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李恒福, 李德馨 등이 그것이 危計라 하여 義州로 가서 明兵을 맞이 하기를 諫言하니 王은 길을 바꾸어 博川에서 義州로 向하였다.

그후 明援軍의 도움을 받아 宣祖 26年(1593) 1月 10日 平壤을 奪還하였고 따라서 戰勢도 날로 有利하게되어 王은 義州行在所를 떠나 收復의 길에 오르게 되었다.[7] 宣祖는 義州를 떠나 肅川을 거쳐 永柔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前年九月 廣州 西學堂洞의 宣陵(成宗陵) 靖陵(中宗陵)이 敵軍에게 盜掘당하여 屍身의 所在를 모르게 되었다는 京畿監司의 報告(이를 「二陵의 變」이라 하여 戰後 處理에 重大問題가 되었다)[8]를 받자 百官을 이끌고 望哭하였다. 서울이 收復됨에 따라 鄭澈, 柳根을 明에 보내어 謝恩하고 李如松이 돌아가자 黃州로 나아가 이를 迎送하고 海州에 이르러 이곳에 行在所를 定하였던 것이다.

全州史庫藏本의 海州 移藏

倭軍이 全州에 進攻하자 全州史庫의 遭難도 目前에 다다랐을 것이다 그러나 日將 小早川隆景이 梨峴을 넘어 襄陽(忠淸南道 論山 楊村面)으로 부터 들어와 全州를 攻擊하였으나 前典籍 李廷鷺과 監司 李洸이 잘 싸워 이를 물리침으로써 全州는 잠시나마 安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틈을 타서 慶基殿의 參奉 吳希吉 等이 太祖의 睟容과 歷代의 實錄을

---

7) 宣祖 卷二十六 二十五年 壬辰 五月
宣祖 卷二十七 二十五年 壬辰 六月
宣祖 卷二十八 二十五年 壬辰 七月
宣祖 卷三十四 二十六年 癸巳 正月
宣祖 卷三十五 二十六年 癸巳 二月
宣祖 卷四十 二十六年 癸巳 七月
宣祖 卷五十三 二十七年 甲午 七月
宣祖 卷一百三十六 三十四年 辛丑 四月
註) 以上의 政府의 避難路程에 對하여는 宣祖實錄 卷二十六 二十五年 四月 十四~同 二十六年 二月까지 參照.

8) 朝鮮王朝實錄 宣祖 卷三十八(二十六年 癸巳 五月 庚午條 v.21, p.703)에 宣靖陵改葬都監啓曰兩陵改葬時 當用誌石玉冊而其時謄錄已爲散失載在 實錄云 全州史庫完全 令春秋館官員急速下去 謄書來 以及葬時上從之

가지고 井邑의 內藏山으로 들어가 內藏寺 隱寂庵에 奉安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井邑에서 멀지 않은 泰仁人 安義와 孫弘錄이 서로서로 交遞하면서 守直하였던 것이다. 그후 宣祖26年 7月 春秋館員에 引繼할 때 까지 滿一年間 兩人이 守護하였던 것이다. 戰亂을 겪는 동안 끝까지 이 두분이 實錄을 守護한 功績은 길이 빛날것이다.

그런데도 壬辰 다음 해인 宣祖 二十六年 七月, 王이 義州로부터 돌아와 平安道의 江西에 머무르자 全州府尹 李廷馣의 啓請에 의하여 實錄을 行在附近으로 옮길 것을 결정하였는데, 그 전말은 다음의 宣祖實錄記事에 依하여 자세히 알 수 있다.

「禮曹啓曰, 太祖大王睟容及先王實錄, 當初本道監司, 擇道內險固處藏置, 今者賊徒將犯江南, 全州府尹李廷馣, 慮意外之變, 欲啓請移安于行在近處云, 請急令史官一人, 與同儀 睟容則爲先差官上送, 實錄則覩賊勢緩急, 或置中道, 或載來, 臨時處之何如, 傳曰, 實錄載來, 爲萬全計, 此意言不去史官」 (宣祖實錄二十六年七月七日字記事)

「政院啓曰, 今者賊勢大熾, 內藏山影幀及史冊移安之擧, 一刻爲急, 前困史官乏少順, 付待敎趙維翰省母之行, 千里遠路, 公私竝行, 恐未能專意, 請令史官一人, 馳驛下去, 移影幀及史冊, 以來何如, 傳曰, 承旨言宣矣, 以事理言之, 則史官當往, 而史官獨往, 似爲孤單, 且不無檢擧之事, 竝勤幹宣傳官下送, 且道路難易, 豫實不知, 若陸路不易, 或近船路, 則可以載船而達忠淸, 京畿, 海西等處, 若以船處, 謂非萬全, 則不必依豫言爲之, 政院隨便處置, 受命史官, 到彼之後, 臨時善處可也」(宣祖實錄 二十六年七月十七日字記事)

이 달에 王은 江西에서 黃州에 도착하였다가 다시 海州로 옮겼다.

壬辰倭亂때 까지 全州史庫에 두었던 實錄은 太祖에서부터 明宗까지 13王의 實錄 804卷이었던 것이다. 이 實錄을 宣祖 26年 8月 趙濬과 韓運이 派遣되어 멀리 全羅道 井邑의 內藏山으로부터 海州에 移送하여 왔던 것인데 이때에 함께 全州史庫에 보관되었던 기타의 書籍도 運來하였던 것이다.

實錄의 移安에 對하여는 全州府尹 李廷馣이 道內 險固處에 藏置하였는데 將次 賊徒의 侵犯이 우려되니 行在所 近處에 移藏하자는 建議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禮曹에서 啓하기를 太祖 睟容만을 우선 올려오고 實錄은 賊勢의 緩急을 보아 途中 적당한 곳에 藏置하는 것이 어떠시냐고 하였다.[9]

9) 朝鮮王朝實錄 宣祖 卷四十(二十六年 癸巳 七月. v.22, p.30)에 禮曹 啓曰 太祖大王睟容及 先王實錄當初本道監司, 擇道 內險固處藏置今者賊徒將犯湖南全州府尹 李廷馣慮有意外之

이에 對하여 王은 傳言하기를 實錄의 移送에 있어서는 萬全之計를 세워서 하되 于先 官員을 보내어 事情을 알아 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實錄의 移來는 宣靖兩陵의 改葬問題로 時急하게 되었다.

亂을 避하여 一時 內藏山에 가있던 全州史庫의 實錄과 기타 書籍들을 海州의 行宮까지 移送해 온 動機는 大駕가 海州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理由도 있지만 그 外에도 몇 가지 다른 事由가 있었다.

宣祖는 行在所를 海州로 定하자 宣靖兩陵의 改葬問題를 發議하여 그에 따른 諸般資料의 收集 即 冊文, 諸石文을 謄書해 오기 위하여 不得已 史官을 井邑의 內藏山으로 派遣키로 결정하였었다. 그러나 그것을 謄書하는 데는 많은 時間을 要하기 때문에 實錄과 거기에 함께 移置되었던 書籍을 모두 海州로 옮겨 오게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全州史庫의 書冊을 移送해 오기 위하여 宣祖 二十六年 七月 當時待敎였던 趙惟翰을 南原에 派遣키로 決定하였다.

實錄과 기타 書籍을 內藏山으로부터 陸路로 南陽까지 실고 와서 거기에서 帆船에 船積하여 延平島를 지나 海州 앞 바다의 結浦까지 와서 책을 下船시켰다. 그리하여 海州의 行在所로 옮겨졌던 것이다.

海州郡邑誌에 「…全州所藏者僅存移藏于本州官廳樓上翰林一員兼春秋一員書史一名使令三名守直」 云云 한것을 보면 海州監營內의 芙蓉堂에 奉安하였던 것아 아닌가 보아진다. 그리고 海州의 臨時史庫에는 위와 같이 人員을 두어 守直하였던 것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難을 避하여 全北 井邑의 內藏山에 一時 移安하였던 實錄은 宣祖 二十六年 七月에 海州의 行在所로 移送되었다.

宣祖實錄 二十六年七月二十六日條에 다음과 같은 記事가 보인다.

「春秋館啓曰, 海州雖云沿海, 時無朝夕警急, 實錄之數, 廿馬可載, 脫有緩急, 移轉不難, 且此大事, 人馬之弊, 固不可計, 而本道輸運, 費力極艱姑安本州, 徐觀事勢, 更議處置, 亦未爲晩, 無已則寧邊似可, 而道路絕遠, 故初不敢啓請, 傳曰, 依啓」

宣祖는 이해 十月 서울로 돌아 왔으나 實錄은 그 후 그대로 그곳에 所藏하여 宣祖二十七年八月의 曝曬가 그곳에서 이루어졌다.[10] 즉 全州史庫本은 宣祖26年(1593) 7月에 海州로 옮겨져 同年 8月 16日에 春秋館記事官 成

燮欲啓請 移安于 行在近處云 請急令史官一人 與監司同議 晬容則爲先 差官上送 實錄則 觀賊勢緩急或移置中道或載來臨時曬之何如 傳曰依啓 實錄載來爲萬全之計 此意言于下去史官

10) 海州 史庫暄曬形止案 宣祖二十七年 (寫本)

晋善, 五衛都摠府都摠官 具思孟, 春秋館事 兪泓等에 의하여 曝曬點檢되었는데 이때의 形止案에 의하면 歷代實錄外에 다음과 같은 書籍이 옮겨져온 것으로 記錄되어 있다. (萬曆二十八年八月十六日附, 海州史庫曝曬形止案)

海 州 史 庫 本

書 名	冊 數	欌	有 無	備 考
庚午元歷	1冊			海州
高 麗 史	17〃			海州
〃	35〃			
〃	8〃			海州
高麗史目錄	1〃	洪		
〃	1〃			
〃	1〃			高麗史三百一冊內一冊無
〃	1〃	黃		
高麗史世家	13〃			
〃	14〃			
〃	25〃			
〃	25〃			
高麗史年表	1〃			
〃	1〃			
〃	1〃	宙		
〃	1〃			
高麗史列傳	18〃			
〃	14〃			
〃	15〃			
〃	18〃			
〃	36〃			
高麗史節要	35〃			
〃	22〃			海州
〃	57〃	宇		
高麗史志	13〃			
〃	16〃	日		
〃	25〃			

高麗史志	25冊			
觀音現相記	1〃			
〃	1〃			
〃	1〃			
交食推步法	1〃			
〃	1〃			
交食通軌	1〃			
國朝寶鑑三件各三冊	3〃			
唐太宗帝範	1〃			
大陰通軌	1〃			
大統曆日通軌	1〃			
東國史記	13〃			海州
東國史略	4〃			〃
東國通鑑又	19〃			〃
〃	28〃			〃
東國通鑑	28〃	別籠第二		〃
〃	22〃			〃
東文選	23〃			〃
〃 又	56〃			〃
〃	8〃			〃
東文選	9〃			〃
〃 又	9〃			〃
東文選又	62〃			〃
東文選	6〃			〃
〃	68〃	別籠第三冊		〃
兵將說	1〃			
〃	1〃			
〃	1〃			
北征錄	2〃			
〃	2〃			
史庫曝曬形止案萬曆 二十二年甲午八月十六日				
四餘纏度通軌	1〃			
射候詩	1〃			
〃				

射候詩	1冊			
三國史	9〃			海州
〃　又	9〃			〃
〃	9〃			〃
三國史記	9〃			〃
三國史記	1〃			〃
三國史節要	7〃			
宣德十年月五星凌犯	1〃			
宣明歷經	1〃			
宣明歷步交會	1〃			
宣明歷要	1〃			
授時歷經	4〃			
輿地勝覽	19〃	第四冊別籠		海州
歷代兵要	12〃	玄		
〃	12〃	荒		
〃	12〃			
易學啓蒙	4〃			
〃	4〃			
五星通軌	2〃			二冊內目錄一
龍飛御天歌	5〃			海州
〃	5〃			〃
緯度太陽通經	1〃			
貞觀政要	7〃			
〃	7〃			
重修大明曆	1〃			
陳　怯	1〃			
〃	1〃			
初學字會	1〃			
〃	1〃			
七政等入內外編	5〃			
內篇	3〃			
太陽通軌	1〃			
訓　辭	2〃	天		
〃	4〃	地		

回回曆各年交食	1冊			
回回曆法	1〃			
回回曆書	1〃			
回回曆緯	2〃			
別冊籠第一以下司書趙維韓運來(萬曆二十二年 甲午 八月 十六日)		辰字櫃		海州

海州史庫形止案에 보면 「月字櫃昱以下四櫃不來」라 記錄되어 있는 바 그것은 宣祖 26年 8月 趙維韓이 內藏山으로 가서 實錄과 기타의 書籍을 疎開하여 올때 月字서부터 昱字까지 4櫃는 실어오지 못하였던 듯하다[11]. "이 4櫃 中에 들어 있던 書籍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조사하여 본 바

月字櫃

高麗史 三十五卷

交食推步二件合 二冊

帝範 一冊

三國史節要一件 七冊

盈字櫃

高麗史節要一件字標三十五卷 一件斤標 二十二冊

昱字櫃二

實錄五函及雜書櫃六開金并八一櫃

御製兵將說 三件

訓辭 三件

射候詩 三件

御製敎書付觀音現相記 三件

海州史庫에 와서 追藏된 書籍은 東國通鑑, 東文選, 三國史記, 與地勝覽, 龍飛御天歌等이며, 海州史庫形止案에 실려 있는것 中 現存치 않는 것은 高麗全史鈞標四十七冊, 貢案, 宣明曆經, 宣明曆步交, 授時曆經, 授時曆議, 初學字會, 回回曆書이다.

妙香山에 疏開

王은 일단 實錄을 海州로 옮겼으나, 그래도 불안을 느꼈는지 二十九年

11) 朝鮮王朝實錄 宣祖 卷四十(二十六年 癸巳 七月 壬戌條 v.22, p.31~32)에 春秋官 啓曰 實錄載來 聖敎充當待敎趙維翰以書冊向南原距內藏山不遠催翰處體曺 啓辭辭錄贍書使之奉審施行厠馬人夫整 齊載來之意請 下論于監司 上曰依啓高麗史東國通鑑與地贍覽東文選須並載來

十一月 다시 이를 寧邊의 妙香山으로 옮길 것을 지시하였다.
寧邊으로의 移安은 이미 全州에서 海州로 갖고 올려 할 때 春秋館에서 제의한 바 있으나 길이 멀기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였던 것인데, 이때 王은 이를 새로히 생각하였던 것이다.

즉 宣祖 27年 서울이 奪還되었고 따라서 同年 6月 10日 王은 서울에 還都하게 되었다. 그러나 海州의 行在所에 疎開한 全州史庫本은 海州營內에 그대로 두었던 것이다. 그런데 海州는 祖宗의 實錄을 長久間奉安할 곳은 못되었다.

그리하여 王은 海州의 實錄을 深山에 있는 刹에 移動해야겠는데 寧邊의 妙香山이 적당할 것 같으니 그리로 옮겨서 그곳 僧職으로서 守直케 함이 可할것이라고 분부하셨다.[12] 그러나 그 實現을 보지 못한 듯하다.

寧邊 移安의 사정에 관해서는 宣祖實錄 二十九年 十一月 七日의 記事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上曰, 祖先實錄, 未委畿馱, 在江華未安, 移置妙香山何如, 斗壽日, 香山上之寺, 地勢甚高, 只有鐵梯, 以通攀矣, 上曰, 必置香山, 使吏官守直, 或差定別官, 以送可也, 云云, 此等數事, 備邊司量處」

위의 王의 敎示가 실행되었음은 宣祖 三十二年, 三十四年의 實錄曝曬가 寧邊史庫에서 行해진 것으로 명백하다.

그러나 實인즉 宣祖 29年에 和議決裂로 倭軍의 再侵이 傳해지자 앞서 慶基殿으로부터 井邑으로 實錄의 晬容을 奉安하였던 孫弘祿과 安義 두 士人은 守僕 韓春과 함께 家僮30餘名으로서 晬容과 祭器를 짊어지고 井邑에서 얼마 멀지 않은 泰仁을 出發하여 急據 牙山縣으로 갔다가 江華府로 들어갔던 것이다.

安義는 病을 얻어 하는 수 없이 泰仁에서 歸還하였고 孫弘祿만이 그해 正月 21日에 다시 江華를 出發하여 海路를 거쳐 淸川江을 올라가 安州에 到着하였다. 安州客舍에 太祖의 晬容을 奉安하고 實錄도 海州로부터 이곳에 옮겨 왔다. 晬容과 實錄은 실로 五年만에 다시 安州에서 會同하게 된 셈이다.

그러나 얼마후 實錄과 晬容을 安州로부터 妙香山 普賢寺의 別殿으로 移安하였던 것이니 그때의 經路에 關하여는 「奉安 御容事蹟」에 明白히 記載되어 있다.

즉 孫弘祿은 安州에서 邑內父老를 招致하여 晬容을 奉安할 適當한 場所

12) 宣祖 卷五十三 二十七年 甲午 七月 上曰海州實錄可置於深山巨刹或寧邊地爲當脫有變故必失之非細事也可置之香山今可信之僧人授以僧職使之堅守

가 없는가 물었던 바 父老들은 一齊히 寧邊 妙香山은 檀君天降之地로서 「峯秀岩奇 谷幽路險」하나 內部는 平地와 같은 데다가 石角重疊하여 外部는 自然城廓을 이루고 僅僅히 西南에 一人單步를 옮길 程度의 狹路가 水口를 通하여 있으므로 丹兵의 來侵이나 前後五回의 蒙古兵來侵에도 犯하지 못했던 天作의 神山이라고 말하면서 이에 移安할 것을 主張하였다.

孫弘祿은 韓春과 함께 妙香山으로 들어가 普賢寺 別殿에 이를 奉安하였다 安州를 出發할 때에 父老들이 모두 나와서 餞途하였고 妙香山에 이르렀을 때는 諸僧들이 到來를 듣고 모두 山外 十里之地에 이를 出迎하였다고 한다.

이른바 壬辰 및 丁酉再亂은 宣祖 31年8月 18日 壬辰亂의 主謀인 豊臣秀吉의 死亡으로 終局을 告하고 敗退하였으며 全州에 奉安하였던 晬容과 實錄은 壬辰 兵火를 冒免하여 保全케 된 것이다. 「事蹟」에

「五殿御容 諸處實錄盡入灰燼 獨我 慶基殿御容 實錄保全於香山 吁異矣」

라 하고 月沙 李廷龜가 「實錄印出廳題名錄序」에서

「幸興王舊府被兵最後國史一本得免 基攴乃於兵戈播越之中 函命浮海西輸 奉安於行在 金櫃秘籍 宛然無缺」

이라 한 바와 같이 實로 開城穆淸殿, 京城永禧殿, 永興璿源殿, 平壤永崇殿, 慶州集慶殿의 五殿에 奉安되었던 太祖晬容과 京城春秋館, 星州·忠州兩史庫所藏의 典籍들의 擧皆가 灰燼化하였건만 唯獨 全州慶基殿의 晬容과 全州史庫의 實錄만이 宛然無缺 이를 保全할 수 있었던 것이며 이는 孫弘祿 安義 두 士人의 功績이라 할 수 있다.

宣祖는 倭軍撤退를 듣자 行在所에서 守僕 韓春으로부터 晬容과 實錄의 移安 經緯 및 妙香山의 僧徒守直의 現狀 등을 聽取하고 그 無事함을 알게 되자 韓春의 손목을 잡고 기뻐하며 「萬若 너의 功勞가 없었더라면 予는 다시 聖祖의 晬容을 拜謁할 날이 없었으련만……」하고 泣然落淚하자 韓春 또한 「全羅道 泰仁縣에 孫弘祿, 安義 두 士人이 있었읍니다. 壬辰年으로부터 井邑內藏山에 移安하였다가 癸巳年에는 牙山縣客舍에 移安하였고 丙申年에는 江華府別館에 移安, 그리하여 오늘에 이르도록 寧邊의 妙香山에 保全된 것은 오로지 孫·安 兩人의 功입니다」라고 그들의 功을 讚揚하는 등 劇的인 場面이 亦是 「奉安 御容史蹟」에 보인다.

亂中에 全州史庫에서 妙香山中 普賢寺에 이르기까지 轉轉한——곧 孫弘祿, 安義 一行이 등짐으로 運搬한 典籍은 實로 實錄外 「本朝文紀三十餘駄 高麗史 二十餘駄에 이르는 엄청난 分量이었다.

妙香山에 移藏되었던 書籍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妙香山史庫本

書名	冊數	櫃	有無	備考
各年曝曬安	2冊	油紙字天帙		
戊午元曆	1〃	天		
高麗史	8〃	別籠四		
〃	17〃	〃一		
高麗史目錄年表世家并	27〃	黃		
高麗史目錄年標世家并	27〃	宙		
高麗史目錄列傳	18〃	黃		
〃	18〃	宙		
高麗史目錄志	25〃	〃		
〃	25〃	黃		
高麗史列傳	35〃	荒		
高麗史節要	22〃	別籠第二		
高麗史節要	35〃	玄		
高麗史節要斤標	22〃	宇		
高麗史節要宇標	35〃	〃		
高麗全史劒標	47〃	日		
〃	43〃	洪		四十三冊內一冊無各年曝曬案亦無
古日記	5〃	油紙字天帙		
貢案	8〃	〃		
〃	8〃	天		
觀音現相記	1〃	荒		
〃	1〃	地		
〃	1〃	天		
國朝寶鑑 三件并	9〃	地		
射候詩	1〃	荒		
〃	1〃	地		
〃	1〃	天		
三國史	9〃	別籠第一		
三國史記	1〃	別籠四		
〃	9〃	別籠三		
三國史又	9〃	〃一		

三國史又	9冊	別籠一	
三國史節要	7〃	玄	
宣德五星凌犯	1〃	天	
宣明曆經	1〃	〃	
宣明曆步交食	1〃	〃	
宣明曆要	1〃	〃	
授時曆經	1〃	〃	
授時曆議	1〃	〃	
授時曆立成上	1〃	〃	
授時曆捷法成上	1〃	〃	
輿地勝覽	19〃	別籠四	
五星通軌	1〃	天	
五星通軌用數目錄	1〃	〃	
龍飛御天	5〃	別籠四	
〃	5〃	〃	二
緯度大陽通軌	1〃	天	
貞觀政要	7〃	地	
〃	7〃	天	
交食推步法	1〃	玄	
〃	1〃	天	
交食通軌	1〃	〃	
唐太宗帝範	1〃	玄	
大陽通軌	1〃	天	
大陰通軌	1〃	〃	
大統曆日通軌	1〃	〃	
東國史記	13〃	別籠第四	
東國史略	4〃	〃	一
東國通鑑	22〃	〃	一
〃	28〃	〃	二
〃 又	28〃	〃	二
〃 又	19〃	〃	二
東文選	22〃	〃	一
〃	6〃	〃	二
〃	68〃	〃	三

東文選又	9冊	別籠第三		
〃	9〃	〃 四		
〃 又	56〃	〃 四		
〃 又	8〃	〃 四		
兵將說	1〃	荒		
〃	1〃	天		
北征錄	2〃	地		
〃	2〃	荒		
四餘纏度通軌	1〃	天		
陳法	1〃	地		
重修大明曆	1〃	天		
初學字會	1〃	荒		
七政等	8〃	天		
訓 辭	2〃	〃		
〃	2〃	地		
〃	2〃	荒		
回回曆各年交食	1〃	天		
回回曆經度立成	3〃	〃		
回回曆法	1〃	〃		
回回曆書	1〃	〃		
回回曆緯度立成	2〃	〃		

妙香山 普賢寺 別殿에 安置한 書籍中 다음의 것은 還都時에 서울로 올려왔다.[13]

그런데 이들 書籍이 上京되어 後에 江華로 보내졌는지 혹은 弘文館에 收藏하였는지 자세치 않으나 書籍의 內容으로 보아 原來 弘文館에 所屬되었던 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書 名	冊 數	櫃	有 無	備 考
高麗史節要	35冊	地		上京
東文選又	62〃	別籠第三		〃
兵將說	1〃	地 天字油紙		〃
宣靖陵改奬儀軌	2〃	俗		上本館

13) 香山史庫實錄曝曬形止案, 宣祖 三十二年 (寫本)
香山史庫實錄曝曬形止案, 宣祖 三十四年 (寫本)

歷代兵要	12冊	荒		上京還藏
〃	12〃	玄		上京
〃	12〃	地		上京還藏
易學啓蒙	4〃	〃		上京
〃	4〃	荒		〃
李廷馨野史	1〃	天字油紙袋		〃
陳 法	1〃	荒		〃
初學字會	1〃	地		〃
計	147〃			

結 論

宣祖二十五年(1952) 壬辰倭亂 때에 春秋館, 忠州, 星州의 實錄은 모두 兵火에 없어지고 오직 全州 史庫의 實錄과 기타 서적이 남게 된데 對해서 安義, 孫弘祿의 功勞를 말하지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安義, 孫弘祿의 傳記는 자세히 傳하여지고 있지 않으나 모두 全州의 선비로서 壬辰六月에 倭軍이 錦山에 侵入하였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은 私財를 털어서 太祖實錄부터 十三代 明宗實錄까지 八百四卷의 實錄과 其他 史庫所藏圖書 全體를 井邑郡 內藏山으로 運搬하여 이듬해 七월에 政府에 引繼할 때까지 一年有餘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이것을 守直하였다. 만일 安義, 孫弘祿이 아니었더라면 오늘날 우리는 明宗以前의 實錄原本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듬해 七月에 政府는 史官을 內藏山에 派遣하여 實錄을 海州로 옮기고 그후 海州에서 妙香山으로 옮겼다.

倭亂이 平定된 後 國家의 財政이 困難하고 物資가 缺乏함에도 不拘하고 實錄出版事業을 일으켜 宣祖三十六年(1607) 七月부터 同王三十九年(1610) 三月까지 二年九個月 사이에 太祖實錄부터 明宗實錄까지 八百四卷의 實錄을 다시 活字로 出版하였다.

宣祖三十九年 歷代實錄의 複印事業이 끝난 후 江華島에 史庫가 設置되었다. 江華史庫(一名 磨尼山史庫라함)의 形止案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書籍이 追藏되어 있다.

盈字櫃

古日記 五冊

李廷馨野史 一冊 上京

宣靖陵改葬儀軌 二冊 上本館

小學 四冊
皇華集 三冊
擊蒙要訣 一冊
昭武寧社謄錄 合一冊
王世子嘉禮儀軌 一冊
豊呈都監儀軌 一冊
遷陵都監儀軌 一冊
穆陵都監儀軌 一冊
孟子諺解 七冊
論語諺解 四冊
大學諺解 一冊
孝經大義 一冊
春秋館史記草 三籠

이 中 古日記는 어떤 日記인지 그 內容이 궁금하며 李廷馨의 野史一冊 上京이라 記하였으나 現存치 않는다.

그리고 이 形止案에는 都監儀軌, 謄錄이 追錄되어 있는 바 史庫에 璿源譜錄이 收藏되기 시작된것이 이 때 부터가 아닌가 생각된다.

어쨌든 여기서 17種 35冊 3籠이 追加된 셈이다.

壬亂以後 史庫本의 移動面에서 볼 때 江華史庫原本은 全州史庫本 그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隆熙2年 各史庫가 폐지됨에 따라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歷代實錄, 記錄 및 書籍이 奎章閣藏書에 收合되었는데 現存하는 奎章閣圖書中 最古貴重本들은 全州史庫以來 傳해온 그것들이다. 그러므로 現在의 奎章閣圖書의 根源을 밝히는 意味에서도 全州史庫의 藏書, 內容을 確實히 하는 것은 매우 貴重한 일이라고 본다.